

중국 조선족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현미나*·박지선**·신동면***

요약

본 연구는 부모들이 외지에 있는 중국 조선족 우수아동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국 조선족 우수아동의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3개 지역 학교에서 우수아동과 비우수아동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내재화문제행동,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문제행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우수아동집단과 비우수아동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둘째, 우수아동의 문제행동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 구조적 인과관계와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아동 집단은 비우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서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 비우수아동 집단 순으로 문제행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수아동 집단은 비우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인에서 비우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 양부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 요인에서는 양부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 비우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우수아동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아동의 문제행동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사회적지지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우수아동, 조선족 우수아동, 내재화 문제행동, 사회적지지

* 주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공동저자: 우송대학교 사회복지 아동학부 초빙교수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dmshin@khu.ac.kr)

1. 서론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 목표로 삼아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산업화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중국 사회는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와 함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위협들 중에서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한 사회문제를 꼽는다면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들 수 있다. 농촌의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서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남겨진 아이들, 즉, 우수아동(留守兒童: 중국에서 우수아동의 범위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포괄한다)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¹⁾ 우수아동은 부모가 모두 또는 한 사람이 도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남에 따라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여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특히, 농촌에 우수아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우수아동이라고도 한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우수아동은 2016년 기준, 총 6천 800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미성년자 인구의 22%에 해당한다(新华网, 2016).²⁾

일반적으로 인간은 안정적인 가족관계에서 영·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생리적·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경험하며 도덕성을 갖춘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수아동들은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없다. 우수아동들은 조부모와 살거나 혹은 친·인척들이 맡아 키운다. 더욱이, 지난 30여 년간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수아동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해 가는 연령대에 있는 우수아동들이 부모의 돌봄과 감독을 받지 못하는 방임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내면적 혼란과 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우수아동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수아동들은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감정 교류가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없고 생활자립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습부담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청소년 심리장애와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부모의 부재

1) 아동 및 청소년 연령 범위는 한국에서도 법령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를 규정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2) 중국 정부가 발간한 공식적 통계자료인 ‘제 6차 전국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추계한 2010년 기준 우수아동의 규모는 6,973만 명에 달한다(北京师范大学中国公益研究院, 2016).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우수아동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7,0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공격적 행동, 비행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상하이저널, 2007; 김단, 2012). 특히 내재화 문제행동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좌현숙외, 2011).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위해성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위축된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폐쇄성이 증가하여 지적, 사회적, 도덕적 성장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비행을 증가시키고 비행의 증가는 또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정재훈, 2014). 그리고 부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청소년 비행, 범죄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사회에서 우수아동 문제는 소수 민족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조선족 사회에서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재중 한국 동포의 한국 취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선족 우수아동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 친·인척 혹은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크게 늘었다(장영도, 2014). 한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우수아동은 부모가 모두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별거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류향란, 2006).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우수아동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 우수아동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도 우수아동의 현황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으며, 우수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이에 근거한 문제행동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다. 조선족 우수아동의 문제행동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수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우수아동을 보호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3개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춰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청소년기에 내재화 문제행동이 주로 나타나며,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행동을 파악하는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과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사회 우수아동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살펴본 후,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적 방안으로 알려진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개념과 상호 관계를 살펴본 후,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적용하여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위해 변수의 측정과 자료 수집을 논의하고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먼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우수아동 집단과 비우수아동 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다음으로 우수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루었다. 끝으로, 실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선족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우수아동의 발생과 현황

(1) 우수아동 개념

중국에서 우수아동은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가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남겨진 자녀를 말한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수아동이 증가하였지만, 중국 정부가 우수아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교육부는 2005년 “중국 농촌 우수아동 문제에 관한 연구”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수아동을 유동아동(流動兒童)³⁾과 함께 곤경아동(困境兒童)⁴⁾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회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의 뒤 늦은 대응과 대조적으로 학계에서는 이 보다 훨씬 먼저 우수아동 문제를 지적한 연구들이 있었다. 상관자목(上官子木, 1994)이 처음으로 우수아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부모가 외국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국내에 남겨진 아동을 우수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뒤 이어 손순기(孫順其, 1995)는 우수아동을 “외래노무자녀(外來務工人員子女)”라고 부르며 부모가 호적 소재지 이외의 타 지역에서 노무에 종사하여 고향에 남겨진 아동으로 우수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정의하였다. 우수아동에 대한 이들의 문

3) 유동아동(流動兒童)은 현 거주지에서 정식 호적 등록이 안 된 임시 거주자를 유동인구(流動人口)라고 부르며, 부모를 따라 호적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동아동이라고 한다.

4) 곤경아동(困境兒童) 범위에는 우수아동, 유동아동, 부랑인 미성년자, 일시적으로 생활보장이 안 되는 미성년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 에이즈 감염 영향이 있는 아동, 부모가 감옥·마약 수용소에 있는 아동, 중병·희귀병이 있는 빈곤아동 등이 포함된다.

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수아동 문제를 논의하기 전까지 우수아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2005년 교육부의 회의를 계기로 우수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우수아동 문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다. 이제 중국 정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우수아동은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호적 소재지 이외 지역으로 나가서 고향에 남겨진 미성년자를 호칭하는 일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2016년 중국 민정부(民政部)⁵⁾는 농촌 우수아동 인구통계를 시작하면서 노동법의 아동 연령 규정(만 16세 이하)을 쫓아 “우수아동은 부모 양쪽 혹은 부모 한쪽이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일자리에 종사하고, 고향에 남겨져 돌볼 능력이 없는 한 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는 16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 민정부의 정의를 쫓아, 우수아동은 ‘양부모 또는 한부모가 타 지역에서 일자리에 종사하고’, ‘고향에 남겨진 16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2) 우수아동의 발생원인

그러면, 중국 사회에서 우수아동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원인을 무엇인가? 왜 부모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갈 때, 아동을 동반하지 않고 고향에 남겨두게 될까? 우수아동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력 이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집단으로서, 중국의 호적제도와 지역경제 발전의 격차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우수아동 발생은 중국의 호적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에서 호적(戶籍)은 한 가족 구성원의 기본 사항을 기록하는 법률 문서로 공민의 신분증명이 되는 행정 문서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호적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의 수급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교육, 의료, 사회보험, 주택(부동산), 취업, 사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에 호적이 등록된 주민에게만 제공되며, 지역 호적이 없는 외래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상, 2015).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온 대다수의 외래노동자는 도시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3D 업종에 종사하여 지역 주민에 비해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 또한, 중국의 의무교육법(義務教育法)에서는 학생이 호적 소재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9년간의 국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는 학비와 차독비(借讀費)⁶⁾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중학교 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수학능력시험

5) 민정부(Ministry of Civil Affairs)는 사회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6) 차독비는 호적소재지 이외의 기타 성(省), 시(市), 현(縣)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해당지역의 교육자원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을 반드시 호적지에서 치러야 하는데, 각 성, 시마다 교과서와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학을 한다 해도 학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진효려, 2014). 이와 같은 중국의 호적제도와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제도는 우수아동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수아동 문제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의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주민들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 2015년 농촌지역 주민의 1인당 연간 소득은 11,422위안(元)이고, 도시지역 주민의 1인당 연간 소득은 31,195위안(元)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2.73배나 된다(중국 통계연감, 2015).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청·장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수아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우수아동 현황

중국 사회에서 우수아동은 산업화와 중국의 특수한 호적 및 공공서비스제도가 맞물려 발생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 우수아동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2010년 제6차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아동 인구는 2억 7천 890만 여명인데, 그 중에서 농촌 우수아동은 6천 103만 명에 달한다. 농촌 우수아동은 농촌 아동 인구의 37.7%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볼 때 전체 아동 인구 대비 21.88%에 이른다(全国妇联, 2013). 2008년 농촌우수아동 규모가 5,800만여 명으로 파악한 것에 비하면(全国妇联, 2008) 5.22% 증가한 규모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우수아동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0~5세의 영유아가 3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아동기의 6~11세가 32.01%가 다음으로 많았고, 15~17세가 13.3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 농촌 우수아동의 연령별 통계

단위: 만 명

연령	아동인구	농촌 우수아동	농촌 우수아동 중 비율(%)
0-5세	9,026	2,342	38.37
6-11세	8,454	1,953	32.01
12-14세	4,652	995	16.3
15-17세	5,759	813	13.32
합 계	27,891	6,103	100.00

출처: 全国妇联(2013). 2010년 전국 제6차 인구조사 재정리.

다음으로 유수아동의 거주 실태를 살펴보았다. 2010년 ‘전국 제6차 인구조사’에서 0~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전 중국에 1.85억 가구이며, 총 가구 중 46%를 차지한다. [표 2]를 보면, 0~17세 아동은 총 2억 7,890만 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에서 유수아동은 약 8,450만 명으로, 전체 아동에서 30.3%를 차지한다. 그리고 유수아동들 중에서 6,103만여 명, 71.2%가 농촌에 거주하여 유수아동 문제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수아동들의 동거 형태를 살펴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유수아동이 총 4,430만여 명으로 각각 전체 유수아동에서 17.2%와 35.3%를 차지한다. 이들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자리를 찾아 나가 한 부모와 동거하는 유수아동이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간 유수아동이 총 4,010만여 명으로 전체 유수아동들 중에서 47.5%에 달하였다. 이들 중에서 조부모와 동거하는 유수아동이 2,250만 여명으로 가장 많아 56.25%를 차지하였다. 혼자 거주하는 유수아동도 304만 명에 달하여 7.6%에 달한다.

[표 2] 유수아동의 동거 유형, 2010년

단위: 백만 명

동거 유형		아동 인구 수	비율(%)	농촌 유수아동 수
양부모와 거주		194.46	69.7	
유수아동	아버지와 거주	14.42	5.2(17.2)	10.29
	어머니와 거주	29.91	10.7(35.3)	22.21
	조부모와 거주	22.57	8.1(26.7)	19.94
	혼자 거주	3.04	1.1(3.6)	2.06
	형제자매와 거주	6.72	2.4(7.9)	6.53
	기타 친인척	7.84	2.8(9.2)	
	소계	84.5	30.3(100)	61.03
합 계		278.91	100	

출처: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의(2013). 중국아동인구개요.

(4)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 현황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의 유수아동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일자리를 구해 나온 청·장년층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조선족이 중국내 도시지역 대신에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온 것은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한국의 임금 수준이 주요 요인이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동일 민족이라는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또, 한국 정부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을 허용해 왔고, 중국 동포에 대한 우대적 조치를 취해 왔던 것도 조선족 이주근로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조선족에 대한 비자발급 제도 완화와 한·중 국제결혼 인원의 증가 등 사유로 한국에서 취업하는 조선족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법무부(2016)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국 동포는 2012년 44만 7,877명으로부터 2016년 7월에 63만 2,150명으로 늘어나 매년 8% 증가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 조선족을 포함하여 단순기능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이주근로자에 대하여 정주화(定住化) 방지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즉 한국 내에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장기 체류에 의한 정주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년 이내로 취업 기간을 제한하고, 취업연수 및 직종 제한, 입국 연령 제한 등을 둬으로써 가족의 이주로 생길 수 있는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다(김영화, 2014).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제한으로 조선족 미성년자들은 부모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겨져 우수아동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차세대 교육문제, 빈번한 출입국과 가족분산에 따른 가족구조 변형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연변주의 조선족 우수아동 비율은 매년 늘어나 조선족 청소년집단의 최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조선족 우수아동 문제는 중국 내 우수아동 문제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전체 아동 중에서 우수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둘째, 우수아동 부모의 대다수가 한국에서 노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분리 기간이 장기간이며, 셋째, 장기간의 별거로 부모가 이혼한 이혼가정 아동 비율이 높고, 넷째, 도시 거주 우수아동 비율이 높고, 다섯째,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다(朴金海, 2012). 조선족 우수아동은 이 같은 특수성에 더하여 비우수아동들과 비교하여 문 제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수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인다. 조선족 학교 교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 우수아동은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격 발전의 불균형을 겪고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족 우수아동들 중에서 성격이 삐뚤고 반항심리가 강하며, 열 등감을 지니고 충동적이며, 자신감과 좌절 극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학업에 싫증을 느끼고, 도덕의식의 결여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김영화, 2014).

요컨대, 중국 사회에서 우수아동 문제는 중국의 호적 및 공공서비스제도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성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의 우수아동은 한중 수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국내 조선족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2)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아헨바크와 에델브룩(Achenbach & Edenbrock, 1983)은 개인이 연령에 맞는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behaviour)과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아동들, 특히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가족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보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앞서 <표 2>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 우수아동들 중에서 47.5%가 양 부모가 없이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홀로 살거나 형제자매와 거주한다. 양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남겨진 대부분의 우수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들과 비교할 때,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특히 우수아동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위축, 불안, 우울, 자살충동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아동들은 부모동거 아동들과 비교할 때, 심리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심리문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刘志强, 2007; 林细华 외, 2010; 王树明 외, 2011). 우수아동은 초조감, 고독감, 공포, 신체화장애(somatization), 자책 등이 부모동거 아동에 비해 높았고, 심리건강 수준이 좋지 않았고, 정서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경험은 학생의 심리문제, 특히, 중학생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교류 및 대화 부족, 부모의 지지부족 등으로 우수아동이 심리건강 상태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의 발전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수 경험을 겪은 아동은 부모로부터 돌봄과 가정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 위축과 학습장애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개인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수 아동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우수아동의 인적자원 개발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층이동을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농촌 우수아동의 부모들은 학력이 낮고 도시로 이주해 돈을 벌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공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广州日报, 2014)⁷⁾. 우수아동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수아동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우수아동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저소득층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우수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돌봄과 가정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여 진

7) “至少2000万农村青少年辍学打工”, 广州日报, 2014.07.01

학을 포기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수아동들은 사고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수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여 자기방어 의식과 안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전기·식품·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위험 발발 가능성이 더 높다(朱蘊麗외, 2005). 예를 들어, 2014년 중국 아동발전지표에 의하면, 1세 이상 아동의 사망 원인 중 상해(傷害)가 가장 높은 53%를 차지하며, 상해사망 원인으로는 물놀이 사망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망, 추락사망, 중독사망, 화상사망, 폭력사망 순으로 나타났다(UNICEF et al., 2014). 그리고 우수아동들 중에서 여자 아이는 부모가 떠나면서 성범죄 피해대상이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付玉萍, 2005).

요컨대, 우수아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시기의 문제행동이 적절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년이 되어서 반사회적인 행동 및 공격적 행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이혜수, 2003). 그리고 우수아동의 문제행동은 개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우수아동의 안전사고와 성범죄 노출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정적 효과를 지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3) 내재화 문제행동과 대처 방안에 관한 논의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심리적 문제행동으로 위축, 불안, 우울, 주의집중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외적으로 표출된다.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은 모두 자신과 타인, 가정,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조건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관련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결여가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의 결여가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자아탄력성 결핍, 자아존중감 부족, 사회적지지 부족에서 찾고 각각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으로 당면한 위협이나 상황 등과 같은 역경 상황과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윤진욱, 2014). 인간은 변화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 할 경우 스트레스 유발과 부적응

상황에 놓이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최미숙, 2014). 따라서 효율적이고 건강한 적응을 위해 자신의 심리·행동 충동을 통제하는 자아탄력성을 필요로 한다(Block & Block, 1980).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다룬 실증 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순, 2005; 장진아외, 2006; 박원주, 2011; Huey & Weisz, 1997).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예방하고 일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안에 대해 민감성을 낮추어 생활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박새와, 2012). 또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중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적응적인 모습을 보여, 자아탄력성이 부정적 환경조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유성경외, 2004). 요컨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개인의 내적 문제들과 환경 변화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응하여 좌절하지 않고 적응적인 발달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에 대한 존중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를 지닌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높게 평가한다. 또한 자기 나이 또래와 자기 정도의 교육 수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부정적 자아를 지닌 사람은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과소평가하고 장점보다 약점에 초점을 두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과업이 자신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박옥임, 2006).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증연구들을 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열등감을 호소하거나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반의숙, 2009; Rosenberg, 1978). 또한 우울, 초조 등의 심리적 문제, 교우생활 및 선생님과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황매향 외, 2006; 정문자 외, 2009; 신건철·신민선, 2010).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낮아져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문제행동 간에 부(-)적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사랑, 존중, 인정과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한다. 사회적지지의 근본적 체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지원체제, 자원봉사집단 등의 의도적으로 형성된 지원체제, 전문기관에 배치되

어 있는 전문가 등 사회제도화 된 지원체제를 일컫는다. 브리스톨(Bristol, 1984)은 사회적지지 유형을 가족,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지지와 교사, 비영리조직, 정부 등 공식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의 주요제공 자원은 이들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는 가족, 친구,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가족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한 개인에게 출생으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청소년기까지 발달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 요소이다(김진경, 2011). 친구지지를 보면, 청소년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될수록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반면,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수용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구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양원경, 1999). 교사지지를 보면,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교사지지와 문제행동 간의 부(-)적 관계를 보인다(한미현 외, 1996). 이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비영리조직과 정부도 청소년을 위한 주요 사회적 지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 교사, 지역사회, 정부 등으로부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김아영 외, 2007).

또한 사회적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강희경, 2006; 김명숙, 2012). 그리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오승환, 2001; 문애순,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숙, 2009; 김택호·김재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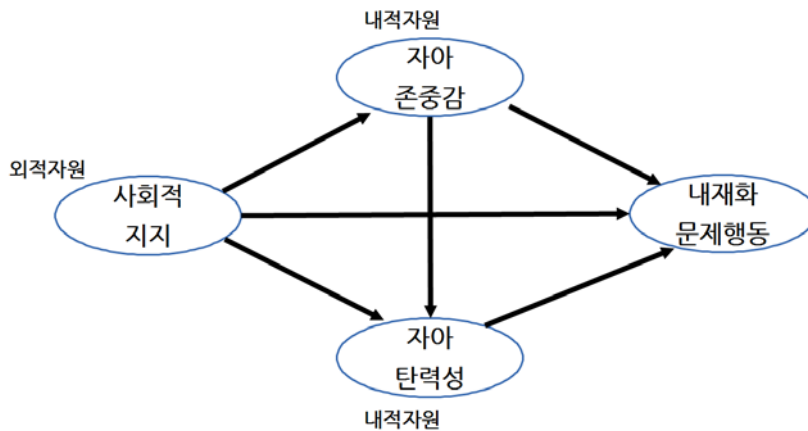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다룬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사회적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한다는 것을 밝혔다(구자은, 2000).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아동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적응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김관희, 1997). 또,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우울, 불안 등 내재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형성되며 학교생활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진옥, 2014; 황매향 외, 2006).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아탄력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지지(보호자, 교사, 친구)와 내재화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통해 내적자원과 외적자원 간 관계를 표시하였다. 사회적지지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차원의 영향요인에 해당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영향요인에 해당한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우수아동과 비우수아동이 내재화 문제행동,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우수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3. 연구방법

1) 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한국어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실시한 내재화 문제행동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설문문항들을 구성하였다. 하위 영역은 우울,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으로 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오승환(2001)이 수정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블록과 크레만(Block & Creman, 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심혜원(2002)이 수정 보완한 14문항을 다시 수정하여 사용한 김영민·임영식(2012)이 사용한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환경적응과 긍정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을 4점 척도로 하였다.

셋째,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놀텐(Nolten, 1994)이 개발하고, 멜렉과 엘리엇(Malecki & Eliot, 1999)가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조준한(2010), 최미숙(2014)의 척도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등 3개의 하위 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우수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경제수준, 부모와의 만남빈도, 연락빈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한국어로 된 문항을 연변 조선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자료 수집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약 220만 명이다(재외동포 현황, 2015). 이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최대의 한민족 집단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 집중되어 있다. 길림성에는 약 120만 명이 거주하며,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주)는 조선족 최대 집거지역으로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 흑룡강성 약 45만 명, 요녕성 약 25만 명,

북경, 천진, 청도, 상해, 광주 등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김단, 2012).

조선족 우수아동의 상황은 부모의 중국 내 이주 비중이 미미하고, 해외 이주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 이주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본, 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和龙市民政局, 2016). 중국 내 이주와 달리 부모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연락빈도, 만남빈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심지어 부모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돌아오지 못하여 십여 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가정도 종종 보인다. 연변주의 조선족 우수아동 비율은 점점 늘어나 조선족 청소년집단의 최대 사회문제로 직면하고 있으며, 해마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7월까지 연변주 18세 이하 우수아동 수는 3만 5천명에 달하였는데 전체 학생의 22%를 차지하였다(延边日报, 2012). 연변주 내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우수아동 비율은 각각 51.28%, 60.23%, 60.20%에 달한다(延边州共青团, 2013). 이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3개 지역 조선족 중학교 7, 8, 9학년⁸⁾ 412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99부를 통계분석에서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설문조사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행동)들에 대한 측정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내적 적합성을 확인했다. 둘째, 우수아동 집단과 비우수아동 집단의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사회적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또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데이터의 적합성과 변수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수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지와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테스트는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모형에 대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표인 CFI, TLI, RMSEA 값을

8) 중학교 7, 8, 9 학년은 한국 중학교 1, 2, 3 학년과 동일하다.

확인하였다.) 분석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에서 표준오차를 뺀 값(이하 t 값)의 절대값이 1.96이상(5% 유의수준)을 나타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Peek, 2000).

4.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7.4%(189명), ‘여자’가 52.6%(210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은 ‘7학년’이 46.1%(184명)로 가장 많았고, ‘8학년’이 27.6%(110명), ‘9학년’이 26.3%(105명)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훈춘지역’ 42.4%(169명), ‘연길지역’ 32.1%(128명), ‘화룡지역’ 25.6%(102명)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은 복수 응답 하도록 하였는데, ‘어머니’가 64.9%(25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버지’ 50.4%(201명), ‘친할머니’ 16.5%(66명), ‘외할머니’ 16.0%(64명), ‘동생’ 15.3%(61명), ‘기타 친인척’ 9.5%(38명), ‘외할아버지’ 7.8%(31명), ‘친할아버지’ 7.5%(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친인척에는 고모, 고모부 3.8%(9명), 큰아버지, 큰어머니 2.1%(5명), 삼촌 2.1%(5명) 등이 있었다.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76.2%(304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가난하다’가 0.3%(1명), ‘조금 가난하다’가 6.0%(24명), ‘잘 사는 편이다’가 15.8%(63명), ‘매우 잘 산다’가 1.0%(4명)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형태를 통해 우수아동과 비우수아동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수아동’은 58.1%(232명), ‘비우수아동’은 41.9%(167명)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변주 내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우수아동 비율은 각각 51.28%, 60.23%, 60.20%에 달한다는 공식적 통계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延边州共青团, 2013). 우수아동들 중에서 부모 모두가 부재한 경우가 45.7%에 달하였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부재한 경우는 54.3%를 차지하였다. 우수아동 중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은 ‘3년 미만’이 63.5%(99명), ‘3~6년’이 15.4%(24명), ‘6~10년’이 14.7%(23명), ‘10년 이상’이 6.4%(10명)로 나타났다. 만남 빈도는 ‘1년에 몇 번 만난다’가 69.7%(116)로 가장 많았고, ‘언제든지 만난다’는 15.8%(28명), ‘전혀 만나지 못한다’는 14.5%(24명)로 나타났다. 연락빈도에 대한 응답은 통화, 카톡, 위챗¹⁰⁾ 포함하여 ‘언제든지 연락이 된다’가 86.7%(147명)로 가장 많은

9) 일반적으로 CFI와 TLIsms .90이상, RMSEA는 .80이하이면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10) 위챗(Wechat)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이다.

비율을 차지하였고, ‘1년에 몇 번 연락이 된다가 9%(15명), ‘전혀 연락이 안 된다가 4.2%(7명)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399)

변수	범주	빈도수	%	변수	범주	빈도수	%	
성별	남	189	47.4	경제수준 (n=396)	매우 가난하다	1	0.3	
	여	210	52.6		조금 가난하다	24	6.0	
학년	7	184	46.1		보통이다	304	76.2	
	8	110	27.6		잘 사는 편이다	63	15.8	
	9	105	26.3		매우 잘 산다	4	1.0	
지역	훈춘	169	42.2		동거유형	비우수아동	167	41.9
	화룡	102	25.6			우수아동	232	58.1
	연길	128	32.2			양부모 부재	106	45.7
			한부모 부재			126	54.3	
동거가족 (복수응답)	친할아버지	30	7.5	비동거 기간 (n=156)	3년 미만	99	63.5	
	친할머니	66	16.5		3-6년	24	15.4	
	외할아버지	31	7.8		6-10년	23	14.7	
	외할머니	64	16.0		10년 이상	10	6.4	
	아버지	201	50.4	우수아동	만남 빈도 (n=168)	0	24	14.5
	어머니	259	64.9		몇번	116	69.7	
	누나/언니	27	6.8		언제든지	28	15.8	
	형/오빠	20	5.0	연락 빈도 (n=169)	0	7	4.2	
	동생	61	15.3		몇번	15	9.1	
	기타 친인척	38	9.5		언제든지	147	86.7	

기초통계에서 특히 주목할 결과는 조사대상 우수아동들 중에서 부모와 3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이 36.5%에 달하였고, 6년 이상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21.1%로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10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우수아동이 6.4%에 달하였다. 경제적 사정에서 가난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3%에 불과하였고, 잘 살거나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학생이 16.8%에 달하였다. 조사결과로 미루어볼 때, 조선족 우수아동은 중국 사회 전체 우수 아동들과 비교하여 우수아동의 비율이 높고, 부모가 해외에서 이주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부모와 분리 기간이 길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각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AMOS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정지수를 바탕으로 모형수정을 가한 후 적합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및 Kuder-Richardson 20(KR-20)을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사회적지지의 경우, 보호자양육방식, 교사지지, 교우관계 3요인 2차요인 모형으로 가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아 모형수정을 거쳐 모형 적합도를 재확인한 결과, $\chi^2(df)=201.291(85)$, CFI=.941, TLI=.927, RMSEA=.084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었다. Cronbach's alpha=.941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긍정 존중감과 부정 존중감 2요인 2차요인모형으로 가정한 후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가 낮은 문항과 적합도 지표가 통계학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 경로계수가 낮은 2개의 문항이 모형 적합도를 저하시킨다는 판단으로 2문항을 삭제한 후 긍정 존중감 5문항, 부정 존중감 3문항 총 8문항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df)=31.420(18)$, CFI=.956, TLI=.931, RMSEA=.066으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한편 신뢰도 확인 결과, Cronbach's alpha=.735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환경적응과 긍정에너지 2요인으로 구성된 2차요인모형으로 가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표가 양호하지 않고, 경로계수가 낮은 1문항이 발견되어 문항삭제 및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수정을 가한 후 적합도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df)=57.474(33)$, CFI=.948, TLI=.930, RMSEA=.062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신뢰도 산출 결과, Cronbach's alpha=.835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사회적 위축, 우울, 주의집중 3요인 2차 요인모형으로 가정한 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 수준이 양호하지 않아 수정지수를 참고로 모형수정 후 적합도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df)=320.106(201)$, CFI=.917, TLI=.904, RMSEA=.055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척도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898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3) 유수아동 집단과 비유수아동 집단의 주요변수 차이검정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유수아동의 부모 동거 상황에 따른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유수아동을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과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으로 재분류한 후 비유수아동 집단을 포함한 세 집단 간 차이검정을 실시했다.¹¹⁾ 주요변수(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값에 대해 집단 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조선족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과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비유수아동 집단’간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 유수아동집단과 비유수아동집단 간 차이검정

변 수	양부모 부재 (n=106)		한부모 부재 (n=126)		비유수아동 (n=167)		F	
	M	SD	M	SD	M	SD		
내재화 문제행동	사회적 위축	7.51	3.570	7.16	3.783	6.27	3.628	2.795*
	우울	10.77	5.946	10.02	5.980	8.74	5.765	3.978*
	주의집중	9.84	3.969	9.04	3.800	8.65	4.103	2.795
자아탄력성	환경적응	14.32	2.629	14.46	2.835	14.54	2.599	0.207
	긍정 에너지	13.77	2.916	13.99	3.086	14.40	2.537	1.741
자아존중감	긍정 존중감	7.86	2.683	8.80	2.845	8.80	2.770	4.326*
	부정 존중감+	7.15	2.330	7.72	2.654	8.36	2.510	7.67***
사회적지지	보호자 양육방식	10.67	3.596	11.05	3.322	11.34	3.421	1.193
	교사지지	11.30	3.143	11.63	3.023	11.43	3.492	0.307
	교우관계	10.98	3.091	11.33	3.395	11.15	3.528	0.306

+역채점

*p<.05 **p<.01 *p<.001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문제행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긍정적’요인에서 비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요인에서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

11) 통계분석 결과의 해석의 편의를 위해 내재화 문제행동과 사회적지지는 4점 척도를 0~3점으로 바꾸어 역점수화 했고,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를 0~3점으로 변경하였다.

모 부재 우수아동 집단 > 비우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에 서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선족 우수아동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최희웅, 1978; 윤혜미, 1997; 권영미, 1999; 강상희, 2001; 문애순, 2006; 박옥임 2006).

집단 간 차이검정을 요약하면, 우수아동 집단은 비우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수아동 집단을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부모 모두가 부재한 우수아동이 문제행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모두가 부재한 우수아동은 비우수아동 집단과 한부모 부재 우수아동과 비교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우수아동 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사회적지지·자아탄력성·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조선족 우수아동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인관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r=.356, p<.01$) 및 자아탄력성($r=.224,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내재화 문제행동($r=-.27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r=.435,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내재화 문제행동($r=-.551,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내재화 문제행동($r=-.308,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상호 관련성을 지니며,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부정적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사회적지지($r=.222, p<.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부모와의 만남빈도는 자아존중감($r=.204, p<.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유수아동 집단의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표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성별	1								
2.학년	.084	1							
3.경제수준	-.005	-.105	1						
4.만남빈도	.038	-.033	.023	1					
5.연락빈도	.128	.001	.156		1				
6.사회적지지	.042	.161	.222**	.061	.156	1			
7.자아존중감	-.004	.022	.120	.204*	.100	.356**	1		
8.자아탄력성	-.039	.067	.025	.055	-.102	.224**	.435**	1	
9.내재화문제행동	.105	.058	-.069	-.152	-.076	-.279**	-.551**	-.308**	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지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동시에 사회적지지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직접 경로를 포함하였고,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지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를 모두 가정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연구모형의 데이터 적합성을 살펴보면, 적합도는 $\chi^2=100.574$, $df=62$, $CFI=.913$, $TLI=.853$, $RMSEA=.066$ 으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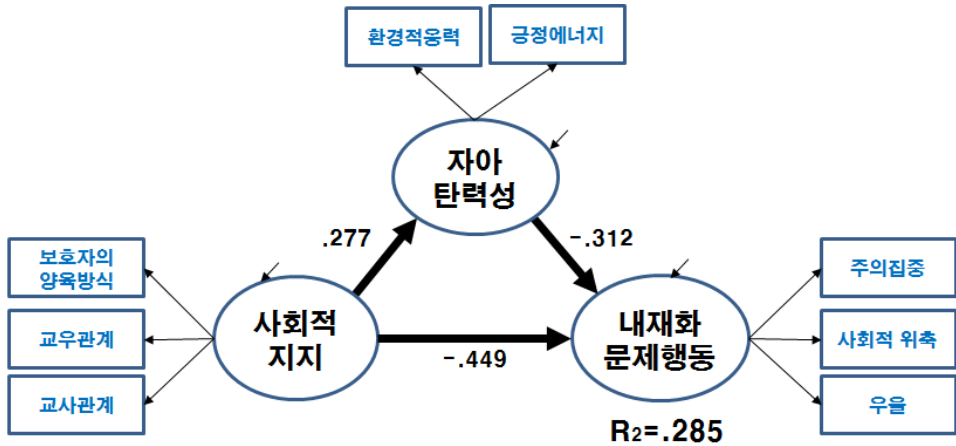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에서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48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사회적지지에서 자아탄력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175,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288이었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가 아니었다. 자아존중감에서 자아탄력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876으로 유의했으나 문제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1.866으로 이상치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에서 문제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909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지 않았다¹²⁾.

따라서 변수 간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중에서 본 연구모형 분석 과정 중 모형의 타당도 검증단계에서 문항 삭제 등을 통해 모형 수정이 이루어졌던 자아존중감을 모형에서 제외하고,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행동의 세 변수 간 관계성을 검증하는 모형으

12)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값이 1.153~1.35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 수정한 후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및 변수 간 관련성을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2]에 제시했다.

[그림 2] 유수아동 집단의 문제행동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n=142 x²=57.755 df=42 CFI=.952 TLI=.911 RMSEA=.052

- 주1) 관측변수와 오차변수 및 잠재변수에서 관측변수로 향하는 수치를 생략하였다.
- 주2) 통제변수로 성별, 학년, 가정경제수준, 만남빈도, 연락빈도를 투입하였으나 그림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 주3) 각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 주4) 모든 경로계수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57.755$, $df=42$, $CFI=.952$, $TLI=.911$, $RMSEA=.052$ 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에서 자아탄력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27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사회적지지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44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자아탄력성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1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변수들의 설명력은 28.5%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지지와 내재화 문제행동 사이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Z=-1.736(p=.082)$ 으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가 나타났지만, 소벨테스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유수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수아동에 대한 다방면의 사회적지지는 유수아동 스스로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파해 나가

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위축 및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다르지 않다. 박새와 (2012)는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양아려·조홍봉(楊阿麗, 趙洪朋, 2011)은 유동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가정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다룬 실증 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명숙 외, 2012; 김현순, 2005; 장진아, 신희천, 2006). 그러므로 조선족 우수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과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조선족 우수아동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밝힌 바와 같이 조선족 우수아동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을 통해 우수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족 우수아동은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조선족 우수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1)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 강화 방안

중국은 현재 아동전문기관이나 아동위탁시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아동보호시설이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조선족 우수아동을 위한 사회적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교사, 친구의 지지가 중요하다.

첫째, 중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수아동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몇몇 지방정부들에서 우수아동들을 위해 대리부모,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고민을 상담해 주어 우수아동의 성적이 향상되고 규율위반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수아동의 친부모들이 대리부모에게 반감을 가지고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우수아동 또한 부모에 대한 그

리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외로워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吳友平, 2014). 대리부모,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수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교사지지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담당교사를 지원해 주거나 생활교사를 지원하여 교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대한다면 우수아동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유대감을 지닐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친구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자아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통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아동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대학생멘토링 사업과 같은 멘토-멘티체계를 중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일회성으로 “삼하향(三下乡)¹³⁾”을 실행하고 있는데, 향진(乡镇)과 같은 시골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시골학교 학생들만 수혜를 입고 있다. 향후 멘티 대상을 현시(县市)까지 포함하고 일회성 자원봉사가 아닌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학기 중에도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우수아동의 자아탄력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 중국의 조선족 우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방안

우수아동 발생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 우수아동 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성장과 호적제도로 인해 초래되었다. 따라서 우수아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수급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는 호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1978년부터 실시한 개혁·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호적제도를 지금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전면 폐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호적제도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에게 농촌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공공서비스를 호적을 소지한 주민에게 제한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증가하는 우수아동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이 우수아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국에서 우수아동의 양육과 보호는 전적으로 가족의 부담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아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13) 삼하향이란 문화, 과학, 보건(의료)을 농촌에 홍보하고,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는 우수아동을 선별적 복지 범위에 포함시켜 우수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 정부도 우수아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아동의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우수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우수아동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향(乡)¹⁴⁾급에 배치하여 우수아동들에게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수아동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사회 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지 대학교와 협력하여 우수아동을 돌보는 멘토-멘티 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수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비영리조직(또는 NGO)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비영리조직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수아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6. 결론

이 연구는 조선족 우수아동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조선족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실태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조선족 우수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 조선족 우수아동 집단을 양부모 부재 우수아동과 한부모 부재 우수아동으로 구분하여 비우수아동집단과 비교하면, 내재화 문제행동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 부정적 존중감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우수아동 집단 내에서도 부모가 모두 부재한 우수아동 집단이 문제행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보면,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을 높여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선족 우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대응 방안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대상의 한계로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주 3개 지역에서 조사를 진

14) 중국행정구역은 성(省), 시(市), 현(县), 향(乡), 촌(村)으로 구분된다.

행했다는 점에서 기타 조선족 지역 아동의 실태까지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가 최종모형에서 삭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외에 내재화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상희(2001).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건강행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희경(2006).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대한가정학회. 44(11). 149-159.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관희(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단(2012). 부모들이 출국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연변 조선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2012). 연변지역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41-1157.
- 김명숙, 김성봉, 김도영, 허철수(2012). 조선족 결손가정아동의 사회적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2. 99-119.
-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감 및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1(4). 945-967.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영화(2014). 중국조선족 출입국관리정책의 변화와 과제: 해외노무의 장기화와 송출지역의 우수아동(留守兒童) 문제에 주목하며. 재외한인연구. 33. 29-62.
- 김진경(2011).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화경(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향란(2006).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애순(2006). 구조적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탐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와(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희망감 및 사회적 지지

-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옥임(2006).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 연구: 3세대가족과의 비교.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원주(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반의숙(2009).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12-20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_____ (2015). 재외동포 현황.
- 상하이저널(2007.11.13). 조선족 '코리안드림'의 어두운 그림자.
- 신건철, 신민선(2010).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응과 인권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1-18.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미녀(2013).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윤진욱(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단일호), 95-120.
- 이상(2014). 중국 유동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및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숙(2009).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연구: 조절요인과 Suppressor 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81-300.
- 이영애, 정현희(2015).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Korea Journal, 23(2), 253-276.
- 이혜수(200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도(2014).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강점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좌현숙, 오승환(2011). 내재화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147.
- 정문자, 여종일(2009).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상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변인. *아동학회지*, 30(3), 71-83.
- 정재훈(2015). 중학생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의 관계: 도덕적 판단력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효려(2014). 중국 농촌 우수아동의 실태 및 정책적 지원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인(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희웅(1978). 결손가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6차 조사 코드북.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황매향, 여태철(2006). 초등학교생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교육*, 15(3), 165-185.
- 황성동,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국무원부녀아동사업위원회사무실·국가통계국사회과학과 문화산업통계사·UNICEF(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办公室·国家统计局社会科技和文化产业统计司·UNICEF). 2014. *중국아동발전지표 이미지북(中国儿童发展指标图集)*.
- 광주일보(广州日报)(2014.07.01.). 최소 2000만 농촌청소년 중퇴하고 일하다(至少2000万农村青少年辍学打工).
- 료전명(廖全明)(2007). 우리나라 중소학교 심리건강문제의 연구진전(我国中小学生学习心理健康问题的研究进展). *보건의학연구와 실천(保健医学研究与实践)*, 4(4), 67-70.
- 류지강(刘志强)(2007). 농촌우수중학생 심리건강수준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农村留守初中生心理健康水平与家庭环境的相关研究). [D]. 사천사범대학(四川:四川师范大学).
- 박금해(朴今海)(2012). 조선족 글러벌인구유동과 우수아동교육문제(朝鲜族跨国人口流动与留守儿童教育问题). *중국변정(中國邊政)*, 190, 49-60.
- 북경사범대학교중국공익연구원(北京师范大学中国公益研究院)(2016). 보호형 현대아동복지체계 마련-중국아동복지정책보고2016(建立保护型现代儿童福利体系-中国儿童福利政策报告2016).
- 부옥평(付玉萍)(2005). 민공조로인한 사회문제: “우수아동”교육관리의 제도적 건설에 대한 견해(民工潮引发的社会问题——“留守儿童”教育管理的制度建设之我见). *경제사(经济师)*, (7), 51-52.
- 상관자목(上官子木)(1994). “우수아동”문제를 중시해야 한다(“留守儿童”问题应引起重视). [J]. 신주학인(神州学人), 6, 024.
- 손순기(孙顺其)(1995). “우수아동”은 실로 우려된다(“留守儿童”实堪忧). *교사박람(教师博览: 文摘版)*.

(2). 10-10.

- 신경보(新京报)(2015.07.16.). 매체:유수아동범죄율 미성년자범죄의 70%(媒体:留守儿童犯罪率一度占未成年人犯罪70%).
- 신화넷(新华网)(2016. 03.27). 우리나라 첫 유수아동기수조사 총1억규모(我国将首次摸清留守儿童底数总数在1亿左右).
- 양아려, 조홍봉(杨阿丽·赵洪朋). (2011). 생활사건, 사회적지지와 유동아동문제행동의 관계(生活事件, 社会支持与流动儿童问题行为的关系). 심리연구(心理研究), 4(6), 67-71.
- 연변일보(延边日报). (2012.05.24). 중소학교유수아동 교육현장회 연길에서 개최(中小生留守儿童教育现场会在延召开).
- 연변주공청단(延边州共青团). (2013). 연변주 유수아동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关于延边州留守儿童情况的调研报告).
- 오우평(吴友平)(2014). 유수아동에 대한 “대리가장제”의 문제점과 방안에 관한 연구(对留守儿童施以“代理家长制”的问题与对策研究). 산동성단교학보: 청소년연구(山东省团校学报: 青少年研究), (1).
- 임세화, 심민, 왕림, 왕우결(林细华·沈敏·王琳·王友洁). (2010). 중국농촌유수아동 심리건강상황의 Meta분석(中国农村留守儿童心理健康状况的 Meta 分析). 화중과기대학교보(华中科技大学学报: 医学版), 39(2), 228-231.
- 왕단(王丹)(2011). 청소년정서-행위문제 가정기능, 인지성정서조절전략과 관계에 관한 연구(青少年情绪-行为问题, 家庭功能, 认知情绪调节策略及其关系研究). 화동사범대학(Doctoral dissertation, 上海: 华东师范大学).
- 왕수명, 주소홍, 서단, 정동강, 정념상, 장연생(王树明·周昭红·舒端·郑同刚·郑念祥·张连生). (2011). 초중학생 유수학생심리건강상황조사(中小学留守学生心理健康状况调查). 현대예방의학(现代预防医学), 38(2), 246-248.
- 전국부련(全国妇联). (2008). 전국농촌유수아동연구보고서(全国农村留守儿童研究报告).
- _____ (2013). 전국농촌유수아동상황연구보고. (全国农村留守儿童状况研究报告).
- 장위원(张伟源). (2009). 장족유수아동문제행동과 성격특징에 관한 조사연구(壮族留守儿童行为问题及个性特征的调查研究). (D). 광서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广西医科大学硕士学位论文).
- 주은려·반극동(朱蕴丽·潘克栋). (2005). “사랑”을 매 지역아이에게-우도현“유수아동”관심사업, 교육계에 주는 제언(把“爱”撒向每一个孩子——于都县“留守儿童关爱工程”给教育界的启示). 강서교육연구(江西教育科研), (7), 43-45.
-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中华人名共和国国家统计局). (2015).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UNFPA & unicef(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 UNFPA & unicef). (2013). 중국아동인구개요-사실과 데이터2013(中国儿童人口状况—事实与数据2013).
- 팽배신문(澎湃新闻). (2016.05.22.). 학자의 남자감옥조사: 17%죄수는 유수아동이었다(学者调研男子监狱: 17%服刑人员曾是留守儿童).

화룡시민정국(和龙市民政局). (2016). 길림성농촌유수아동명단(吉林省农村留守儿童花名册).

- Achenbach,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M. & Edelbrock, S. (1983). Taxonomic issues in child psychopathology. *In Handbook of child psychopathology*. Springer US.
- Block, J. & Block, J. (1980). *California Child Q-set*.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Block, J. & Kremen,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
- Bristol, M. (1984). Family resources and successful adaptation to autistic children. *In The effects of autism on the family*. Springer US.
- Huey Jr, J. & Weisz,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
- Leve, D., Kim, K. & Pears, C.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Nolten,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Malecki, K. & Elliott, N. (1999). Adolescents' rating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ts importance: Validation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Psychology in the Schools*. 36(6). 473-483.
- Peek, K.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3). 301-309.
- Rosenberg, R., Rosenberg, M. & McCord, J.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Abstrac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Korean Chinese 'left-behind' Children in China

Hyun, Mina* · Park, Jisun** · Shin, Dong-M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of the problem behaviors of Korean Chinese 'left-behind' children in China in order to propose a support system to prevent problem behaviors of them.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99 children who attend at three Korean Chinese schools in Yonbian in Chin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This paper analysed the survey data by employing one-way ANOVA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verified if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self-esteem,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between left-behind children's group and non left-behind children's group. It also identified a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and direct or indirect effects among problematic behaviour, self-esteem,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etween left-behind children's group and non left-behind children's group. Second, the left-behind children's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compared to non left-behind children's group, bu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In the positive self-esteem factor, non left-behind children's group showed much higher score whereas left-behind children's group was higher in the negative self-esteem factor. Third, social support for left-behind children's group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negative effect o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 Kyung Hee University

** Woosong University

*** Kyung Hee University

and indirectly negative effects on problem behavior through self-resil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ocial support system for mitigating and preventing problem behaviors and the necessity of preparing measures to improve self-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discussed how to establish a social support system in China to mitigat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Korean Chinese left-behind children.

Key Words: social reform, socialist revolution, factory act, social security, education, labor policy.

◆ 2017.1.24. 접수 / 2017.3.17. 1차수정 / 2017.3.20. 게재확정